

# 해리스-트럼프 '초박빙'...경합주 7곳은 '동률'

## 미국 대선 해리스 vs 트럼프 지지율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11월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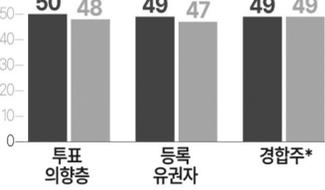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 ABC 방송-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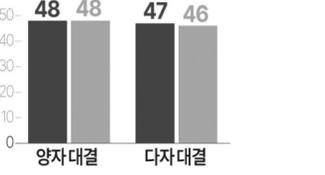
10월 4-8일 전국 성인 2,631명 대상 조사(오차범위 ±2%)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주

### NBC 방송-ABC 방송

10월 4-8일 전국 등록 유권자 1천명 대상 조사(오차범위 ±3.1%)



자료:ABC 방송, 입소스, 연합뉴스

## 20여일 남은 미국 대선 최종 승자는

미 대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팽팽히 맞서는 초박빙 대결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현지시간) 잇따라 나왔다.

미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4~8일 전국 성인 2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포인트), 투표의향중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두 후보의 격차는 2% 포인트(p)였다.

이는 지난 9월 중순 실시한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의향중 조사에서 5%p차, 등록 유권자 조사에서 4%p차로 앞선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훨씬 좁혀진 것.

특히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 해리스 50% vs 트럼프 48%

### 애리조나·조지아 등 49%씩

### '부동층 표심' 해리스 5% 앞서

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49%로 같았다.

응답자들은 이슈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찬성 여론은 8년 전보다 20%p 증가한 56%였다. 이에 대해 ABC는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신뢰도에서 10%p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낙태권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과반이었다. ABC는 "해리스가 낙태에 대한 신뢰도에서 트럼프보다 15%p 앞섰다"고 밝혔다.

경제와 관련, '악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 23%의 2배 이상이었다. 경

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후보별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74%, 해리스 부통령 21%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한 신뢰도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각각 8%p, 7%p 앞섰지만,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p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눌렀다.

또 범죄와 안전, 국가 안보, 중동 분쟁에 대한 대처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 이슈에서는 해리스가 각각 한 자릿수 차이로 앞섰다고 ABC는 전했다.

두 후보 간의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57%는 '해야 한다'고 답했고, 4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세가 워낙 초접전인 상황에서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보터'(부동층 유권자) 표심은 해리스 부통령(49%)이 트럼프 전 대통령(44%)을 5%p 차로 앞섰다. 다만, 이는 9월 중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나타난 10%p 격차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NBC 방송이 ABC 방송과 같은 기간에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오차범위 ±3.1%)에서는 양자 대결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9월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5% 포인트차로 앞섰으나 한 달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1% 포인트(49→48%) 떨어진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 포인트(44→48%) 올랐다.

특히 다자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해리스 부통령(46%)을 1%p 앞섰다. 지난 9월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6%p 우위에 있었다.

이번 NBC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유권자(84%-11%), 18-34세 젊은 유권자(57%-37%), 대학 졸업 백인 유권자(55%-41%)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농촌 유권자(75%-23%), 전체 백인 유권자(56%-42%),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65%-33%) 층에서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막가파' 이스라엘

### 레바논 유엔부대에 강제 진입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남부 접경지대의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부대 정문을 부수고 강제 진입했다.

UNIFIL은 이날 성명에서 "충격적인(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이스라엘군에 해명을 요청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또 이스라엘군이 이들의 활동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UNIFIL은 레바논 남부 나쿠라의 지휘부와 주변 지역이 최근 수일간 반복적인 공격에 노출됐으며 이스라엘군이 UNIFIL 병거 외부 감시 카메라에 총을 쏘 막가파트리는 등 고의로 공격을 가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부터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 지상군과 헤즈볼라 간의 지상전이 본격화하면서 지금까지 UNIFIL 대원 5명이 부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UNIFIL을 전투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레바논 전투 지역에 주둔한 군인들이 헤즈볼라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현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공습 피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목성 얼음위성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 오늘 발사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Europa Clipper)가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15일 발사된다.

13일(현지시간) NASA에 따르면 유로파 클리퍼는 미 동부시간으로 오는 14일 낮 12시 6분(한국시간 15일 새벽 1시 6분)에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앞서 NASA는 지난 10일 발사 일정을 잡았다가 허리케인 '밀타'의 상륙한 탓에 한 차례 연기했다.

이 우주선의 임무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이 탐사선은 지구를 떠난 이후 5년 반 동안 약 29억km를 이동해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한 뒤 유로파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유로파의 환경을 살살이 조사할 예정이다.

유로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49회 주위를 돌며 위성의 거의 전체를 스캔한다는 목표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는 적도 지름이 3100km, 달의 90% 크기로 태양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위성이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의 15~25km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연합뉴스

## 90세 아르마니 회장 "2~3년은 더 일할 수 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그룹 회장인 조르조 아르마니(90)는 2~3년 이내에 은퇴할 계획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아르마니는 이날 공개된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세라와 인터뷰에서 "아직 2~3년은 더 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예전처럼 깊고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없다"며 "더 이상 직장에서 '에' 또는 '아니오'를 결정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찌, 프라다, 불가리, 펜디 등 이탈리아 거대 명품 브랜드가 프랑스 대기업 케링과 LVMH에 매각되는 등 세계 명품업계의 재편 과정에서 아르마니는 독립 경영을 유지해왔다.

그는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그리고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의 투자 제안이 조금 더 필요해졌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없는 아르마니는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공개된 공중 문서에 따르면 아르마니는 사망 이후 그룹을 계승할 상속인들이 지켜야 할 회사 경영 원칙과 일자리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이미 지침을 마련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아르마니의 상속인으로 그의 여동생과 다른 가족 3명, 오랜 연인인 판탈레오 델 로르코, 자선재단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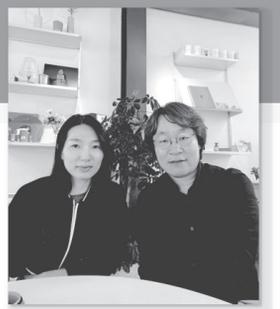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